

자동차

Sector Issue Brief

2025. 7. 24

Check Point

- 일본 자동차 관세 완화
- 완성차センチメンタル 개선 진행 중
- 한미 협상 시 주가 반등 전망

관세 리스크 사라지는 중

| Analyst **이병근** | bglee@ls-sec.co.kr

미·일, 자동차 추가 관세 25%→12.5%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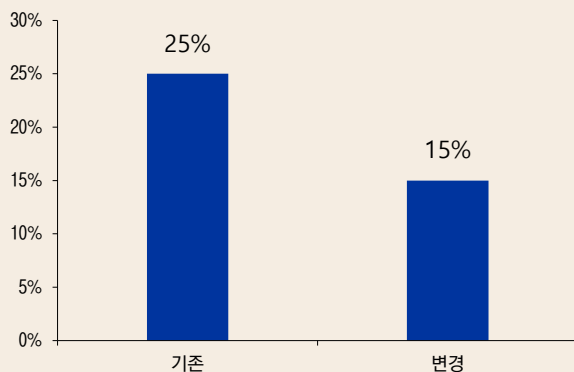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 \$550bn (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2)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 추가 관세를 절반인 12.5%로 낮추고, 원래 세율 2.5%를 더해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 완화 소식에 전일 도요타/현대/닛산 주가는 +14.3%/+11.2%/8.3% 상승했다. 한국 또한 일본과 유사한 협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끝이 보이는 관세 리스크

7월 25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 2+2 통상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특히 미국 측이 일본과 맺은 협정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 확대 및 통상 완화 조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로 수입 관세(일본 2.5%)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하게 협상된다면 12.5%로 관세가 인하될 것이다. 관세 12.5% 적용 시 한국 완성차 업체 연간 관세 피해 금액은 기존 시장 예상의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 한국 완성차 업체의 경우 미국 관세 리스크를 제외하면 실적과 주주환원율이 견조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하반기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

그림1 일본산 자동차 품목별 관세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도요타/현대차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병근).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2%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10.8%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7. 1 ~ 2025.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